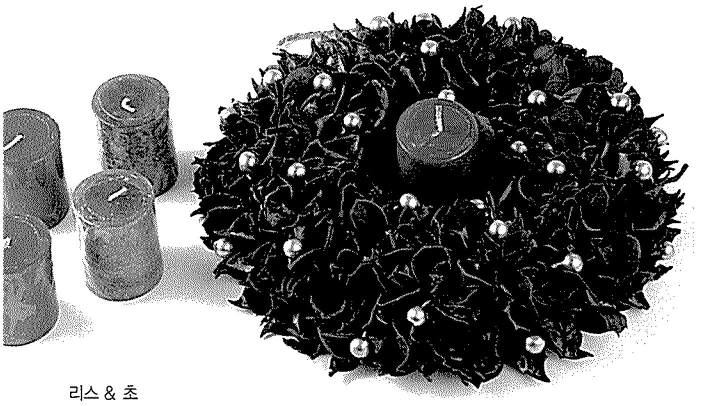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총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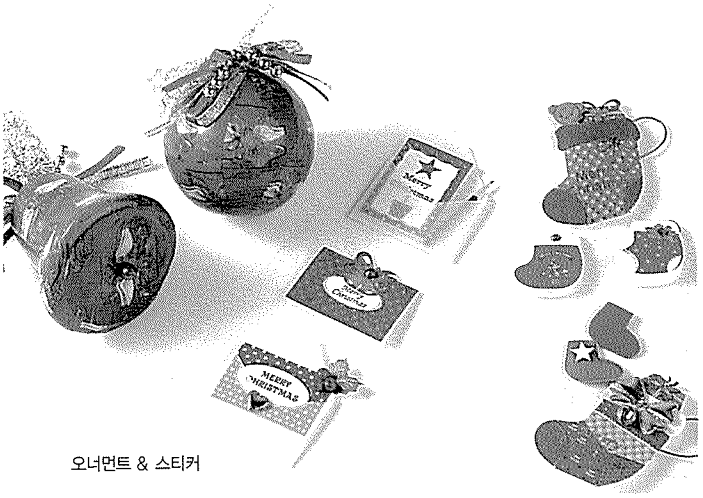
Christmas Accessary



리스 & 초

리스 & 초

리스는 제과점에서 다용도로 쓰이는 액세서리이다. 화려한 리스는 벽에 걸고 심플한 리스는 초를 꽂아 장식하면 좋다. 크기와 장식에 따라 가격은 6천 원에서 1만2천 원 선.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초는 촛대에 꽂아 매장에 장식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6개들이 한 세트가 4천 원.



오너먼트 & 스티커

오너먼트 & 스티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도 올해 유행을 따라 보라색 제품이 많이 출시됐다. 종 모양, 구 모양 등 종류가 많으며 가벼운 스티로폼 소재로 만들어져 포장된 상자에 붙여도 무리가 없다.
입체 스티커는 상자에 붙이기만 해도 포장효과가 뛰어나 제과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오너먼트와 스티커의 값은 모두 1천 원 선.

부쉬(Bush) & 화분

부쉬(Bush) & 화분

부쉬(Bush)는 잘라서 상자에 붙여도 좋고 그대로 매장 곳곳에 장식해도 좋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빨간색, 녹색, 금색을 사용한 부쉬가 많이 나왔으며 가격은 3천500원 안팎. 부쉬나 기타 소형 부케를 꽂을 수 있는 화분의 값은 2천500원이다. 화분에 부쉬만 꽂으면 하나의 훌륭한 장식품이 된다.

타슬 & 벨벳 리본

타슬 & 벨벳 리본

비즈로 만들어진 화려한 타슬은 포장이나 매대 등에 붙이기만 해도 장식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가격은 4천 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타슬이 주는 독특한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겨울 포장에 어울리는 벨벳 리본은 상자를 한번만 둘러도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다. 가격은 한 롤에 1천500원부터 5천 원 선.
시중에 파는 촛대에 초를 올리고 제과점 매장에 장식하면 한결 크리스마스 느낌이 살아난다. 화려한 타슬과 부쉬를 글루건으로 촛대에 붙이면 훨씬 멋진 모습으로 꾸밀 수 있다.